

20 韓半島 (한반도)

일본인 信夫淳平 (노부오 준베에이) 가 1911년
 9월에 출판한 684쪽의 방대한 책이
 다 노부오 (信夫淳平) 씨는 경제학을 전공한
 사람으로서 한말 (韓末) 에 우리나라에서
 일본 총영사 (總領事) 를 3년간 근무했다.
 한말에 우리나라에 관한 저서는 러시
 아 재무부가 발간한 < 韓國誌 > 를 비롯

하여 1880년 에는 <조선의 역자와 풍습(英.
 로웰스)>와 <금봉(禁封)의 방도(獨, 엘베스트 폰베
 르트)>가 있다 1882년 에는 <은둔의 나라 조선
 (미. 구리피스)>가 있고 1884년 에는 <재
 한기(在韓記) 영. 카루스)>가 있고 1884년
 에는 <극동문제(영. 칼손)>등이 있다
 이들 저서는 어느거나 언독의 가치가
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
 특히 이 <한반도>는 선양인들의 저술
 보다 구체적이다 한말의 한국사

소 꺼 한 것 중 가 능 으 기 여 스 제 서 인 으 를 여 기

저 기 삶 이 인 용 되 고 있 다

달 라 가 외 교 관 출 신 이 연 서 정 제 등 히

재 정 에 발 투 은 사 람 이 다 국 제 관 제 기

있 어 무 역 라 정 부 예 스 가 삶 은 리 연 등

하 고 하 고 있 다

이 런 연 고 매 서 연 리 이 려 게 는 당 시 의

무 역 항 만 별 재 반 동 제 기 고 여 작 등 한

애 하 고 있 다

은 한 이 려 은 躡文 (반문) 은 는 사 람

20X10

20X10

No

No

이 6명이든 된다
 내용 중 반면 제 1장 부산과 인천 33쪽
 제 2장 京城 (서울) 108쪽 제 3장 평북을 파
 경은 중 25쪽 제 4장 개성 부 24쪽 제 5장 평양과
 진남포 제 6장 성환 (咸蕪) 9 고원장
 제 7장 행정조직 80쪽 제 8장 재정 79
 쪽 제 9장 국제관계에 미치는 일본 중
 러시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
 와의 관계 중 상술 하고 있다
 제 10장에 미치는 각국의 이익선 이라 해 주

No

No

20X10

20X10

No

정도는 또 청천을 비롯하여 광산 채굴권 등

을 취급하였고 제 11장에 서는 우리 나라의

관한 당시의 여러 가지 동계에 기²준²을

항해 하고 있다

제 2장 서울을 서울한 대서는 당시의

서울시 가지가 조선조 5백 리의 수도답

재 도시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

것을 한 해 하든서 당시 중국의 북경

(北京)보다 더 큰 도시 체계가 있다고

No

한다면 한사군에 대해 말하였다

20X10

20X10

또한 당시 서울에는 20만 인구가 많

았으며 20분 거리에 해당 하는 / 인명이 상

과 있었 다 한다

또한 서울 ~ 평양간의 도로 상태를 기록

하고 있는데 전기 한 때의 화재 무척 가

늘어난 한 <한국의>의 기록과 비슷하다

No

No

20X10

20X10